

방사선 기술·산업진흥 전문기관, 『KARA』 ‘산·학·연·관 간의 구심점이 되어 방사선 산업진흥을 선도’

정경일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회장



다 사다난했던 2021년의 한 해가 저물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 직장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국방사선진흥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021년을 방사선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표로 산·학·연·관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다가올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계획하고 준비한 사항들이 가시화 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착시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방사선 기술은 다양한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잠재 가치가 높은 핵심 기술 분야인 만큼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산·학·연·관과의 가교역할을 협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할 것이며, 방사선 기술 및 산업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협회가 될 것입니다.

회원 및 회원사와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확대하여 상시 애로사항 청취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적시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기술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협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2022년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사선 기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 방사선 기술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 모두가 유기적으로 응집한 가운데 “선순환적인 기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의 정책수립을 총괄지원하고, 기업의 규제현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방사선 기술·산업 연합회”와 “KARA CEO클럽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협회는 “방사선 기술·산업진흥 전문

기관”으로서의 기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방사선 산업진흥을 선도할 수 있는 협회가 될 것이며, 산업화를 위한 R&D와 확대와 대단위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민관 방사선 기술산업 발전펀드”를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선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방사선 기술·산업 진흥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임직원 모두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감, 사명감 등을 갖추어 회원사 및 방사선 기업과 항상 소통할 수 있고, 정부 및 산·학·연 그리고 회원사 모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협회다운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임인년(壬寅年) 「원자력산업」 독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다른 어떠한 해보다 올 한해가 더 나은 해가 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IF**